"우리 좀 봐주세요"…코로나 장기화 속 배려 필요한 사각지대

잃어버린 일상 보건소 직원들 한달 초과 근무 89시간
끊겨진 일거리 대면활동 중단 요양보호사들 지원 제외

매일 밤 10시 50분께 퇴근 등 보건소 직원 과로 해소 대책 절실
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자 미포함 한시 지원금 신청조차 못해

21일 오후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은 일상을 잃어버렸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은 대면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예 일거리가 끊겼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일상과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좀 봐주세요"=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발표한 '광주 서구보건소 코로나19 관련 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투입된 광주서구보건소 직원들의 한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9.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나 확진자 동선파악 업무를 맡고 있는 역학조사 업무 담당자들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 어떤 공무원들보다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해 서구에서 가장 많은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한 공무원은 광주 서구보건소 박경희 감염병관리과장이었다.

박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초과 근무한 시간만 1752시간에 달했다. 선별진료소 운영 등 보건소 안에서도 가장 일이 많았던 감염병관리팀의 수장을 맡다 보니 누구보다 초과 근무 시간이 많았다.

박 과장의 한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46시간, 오후 6시에 정규 근로 시간이 끝난 뒤 매일 4.8시간을 더 일하다 밤 10시48분에 퇴근했다는 얘기다.

유흥주점 발 확진자가 쏟아지던 지난해 8월에는 193시간을 기록했다.

박 과장은 "1년 간 쉬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8월 보건소 인사이동과 유흥주점 발 집단감염이 겹치면서 새로 전보한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었다"며 "피로감 해소를 위해서는 타 부서에 비해 잦은 인사이동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업무 능숙도를 무시할 수 없어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보건소 공무원들도 한달 평균 80시간 대, 많을 때는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다.

김태진 의원은 "'덕분에 챌린지' 등의 캠페인도 좋지만 말이 아닌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서구가 재난 상황 시 의료, 복지, 요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마스크 지급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안 보이나요?"=코로나19 감염위험 속에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는 활동을 펼쳐온 요양보호사들도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보호와 지원에 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하소연한다.

21일 민주노총서비스 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호시설 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환자를 돌보느라 지쳐가고 있고 가정을 찾아 환자를 돌보는 재가요양보호사들은 대면 활동이 중단되면서 일거리도 끊긴 처지다.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을 견뎌내면서 식사보조·목욕 서비스까지 하고 있지만 '돌봄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아 한시지원금 신청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선옥 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넓혀 위험 수당 등 낮은 소득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구례군, 사무관 본인 동의 없이 전남도 파견은 위법"

구례군이 소속 사무관을 본인 동의 없이 전남도로 파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2부는 구례군 A 사무관이 구례군수를 상대로 낸 '공무원 파견발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에 대한 전남도 파견발령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구례군이 본인 동의 없이 전남도로 파견 발령을 내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냈었다.

1심은 '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위법사유 등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르지 않은 임의 파견으로 실질적으로는 인사 교류에 해당하는 만큼 대상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A씨는 동의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남지사는 구례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례군 소속 공무원 파견이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구례군도 전남지사에게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을 특별 사유를 명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검찰 송치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부장판사를 수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판사는 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이동으로 타지역으로 옮긴 상태이며, 광주지검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은 맞지만,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청년들이 만든 푸른길 공원 온택트 감성캠핑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 푸른길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개발한 비대면 관광투어코스 프로그램인 '온택트 챌린지 투어'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푸른길 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21일 공원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참가자들이 감성캠핑을 즐기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실 정비 우려 제기된 한빛원전 6호기 2025년까지 가동 방침에 지역민들 불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실 정비 우려가 제기된 한빛원전 6호기를 오는 2025년까지 그대로 가동키로 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일부 용접·보수해 사용하는 대신, 새 원자로 헤드로 전면 바꾸겠다는 게 한수원의 계획이지만 새로 제작하는 데만 4년 가까이 걸리는 탓에 그때까지 고온·고압에 취약한 재질로 만든 현재의 관통관을 사용하게된다는 점에서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 6호기 원자로 헤드를 오는 2025년 교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빛 6호기는 지난 1월 7일부터 가동을 멈추고 '제 1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상태로, 오는 5월 말까지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특히 인코넬 600재질로 이뤄진 헤드 관통관의 경우 고온·고압에 취약한 점을 감안, 이번 정비 과정에서 인코넬 690재질로 취약한 부분을 용접해 보완하는 등 보수·운영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인코넬 690재질이 아닌, 인코넬 600이나 스테인레스 등 부적절한 재질로 용접한 사용한 사실이나 부적격 용접자가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6호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아예 전면 교체쪽으로 결정했다는 게 한수원측 설명이다.

하지만 새로운 원자로헤드를 만드는 4년 가까이 고온·고압에 취약한 재질로 된 원자로 헤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다른 불안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빛 6호기 보수업체가 사실상 두산중공업 한 곳 뿐이지만 부실 정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수원은 초음파(UT) 등 정밀 검사 결과, 한빛 6호기 원자로 헤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전면 교체때까지 그대로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한빛 5호기도 '이상없음'이라는 초음파(UT) 검사 결과를 받고도 추가 검사를 거쳐 균열을 발견한 점을 들어 의심의 눈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 6호기를 운전 조건·환경이 다른 한빛 5호기와 동일하게 비교,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남구 덕남동 임야, 지분매매
▶ 광주대 지나서 전남대병원 근처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64-21번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됨
▶ 평당 20만원씩 200평 이상 매매함

문의. 010-3605-5000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 만원)

콘도명	사용체인	면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콘도명	사용체인	면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플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 방1	2,850	1,680
		골드(28) 방2	3,210	1,980
		로얄(34) 방3	4,890	3,4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 방1	1,980	980
		스위트A(26) 방2	2,120	1,280
		스위트B(31) 방2	2,600	1,380
		로 얄(35) 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 951-3080
팩스 (053) 944-3080